

2018년도 사우회 정기총회 열려

2018년도 정기총회
(사)문화방송사우회
일시: 2018년 2월 27일(화) 장소: 종로파노라마뷔페



금년도 사우회 정기총회가 2월 27일 오전 11시 종로 '파노라마뷔페'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회원 1,428명 중 167명이 참석하고 316명이 위임장을 보냄으로써 총회 의결정족수(1/3 이

상 참석)를 충족시킨 483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현우(ANN)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이연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를 거듭하면서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금년에는 지나친 교육지책 대신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사우회 운영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MBC 내부의 빠른 세대교체로 인해 선후 배간의 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MBC도, 사우회도 내년에는 더 나아지리라 기대를 갖고 있다. 사우회 살림의 어려운 실정을 회원 여러분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작년도 결산과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신대근 상임부회장의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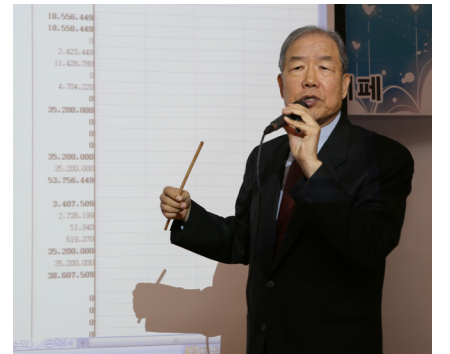
명이 있었다. 신 부회장은 결산보고를 통해 2017년 사우회 재정상황은 영리 부문과 비영리 부문을 합해 총 1,688,505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냈다고 보고했다.(사우회 홈페이지에 상세한 자료가 게시돼 있음) 또한 2018년 예산은 수입 부문의 불투명성을 감안해 긴축예산(2억 7,450만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세하 감사는 “사우회 사무처에서 제출한 제27기 결산보고서 및 회계장부와 증빙을 정관 제32조에 의해 감사한 결과 정확히 처리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보고했다.

이용우 사무처장은 사우회와 세란병원 의료지원 서비스 협약체결 등 2017년 사무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했다. 사우회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점심식사와 함께 치약, 삼

푸 등과 회원수첩을 제공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해 사우회의 협력 상조업체로 지정된 (주)The-K 예다함에서 상조 가입과 관련해 상담을 희망하는 회원들로부터 상담신청서를 받고 기념품을 나눠주기도 했다.



MBC관계회사 대표이사 선임

MBC경남 정대균(내정)	부산MBC 이희길	대구MBC 박명석
MBC충북 이길섭	대전MBC 신원식	광주MBC 송일준
울산MBC 최병륜	MBC강원영동 최중익	전주MBC 송기원
제주MBC 이승엽(내정)	안동MBC 임대근	포항MBC 박병완
여수MBC 홍순관	목포MBC 김영석	춘천MBC 김동섭
원주MBC 김세용	MBC플러스 정호식(내정)	MBC C&I 임흥식
MBC아카데미 홍동식	MBC아트 홍혁기(내정)	iMBC 김원태(내정)
MBC플레이비 최성금(내정)		(2018. 3. 15 현재)

2018년도 방문진 초빙교수

박승규(동덕여대 방송연예과)
이장석(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최삼규(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권문혁(강원대 디자인학과)



2018년도 상반기 동호회 행사 일정

등산대회 4월 19일(목) 낚시대회 4월 27일(금)
바둑대회 5월 30일(수) 단합대회 5월 18일(금)

사우회 각 동호회의 올 상반기 행사가 4월 등산대회를 시작으로 5월 하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등산대회는 4월 19일(목) 오전 10시 우이동 아카데미하우스 종점에 서 출발해 솔밭공원을 거쳐 우이동 종점까지의 북한산 둘레길 코스에서 열린다.(수유역에서 1번 마을버스 이

용. 아카데미 하우스 종점 하차)



낚시대회는 4월 27일(금) 오전 6시 '낚시동호회 시조회'를 겸한 춘계대회로 열리며 장소는 하루 전에 공개한다.

상반기 회장배 쟁탈 바둑대회는 5월 30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A,

B조로 나뉘어 사우회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골프대회는 장소와 예약이 정해지는 대로 회원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사우회는 이번 대회부터 경비절감 차원에서 안내엽서 제작을 생략하기로 했으며, 식사와 차량준비를

위해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들은 반드시 사전 참가신청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사우회와 MBC 본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우회 창립기념 단합대회'도 5월 18일 양주 문화동산에서 가질 예정이며, 추후 사우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회비납부에 관한 안내말씀

회원들께서 매년 납부하시는 회비는 사우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회원 여러분의 경조사에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회무규정 제 4 조에는 "연회비를 5년 이상 납부하

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함으로써 경조비 지급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회비 미납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경조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

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납부 관련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무처로 연락하셔도 즉시 확인하여 드리니 참고하셔서 회

비 장기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회비납부계좌: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올림픽 중계방송 에피소드



김 휴 선(보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끝났다. 방송사의 중계 방송도 성공리에 끝났다. 흠이라면 인기 있는 종목에 치중한 편성을 하다 보니 방송이 더러 중복됐다.

방송사마다 경기장에 아나운서와 해설자를 쓰다 보니 뜨거운 해설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 어록도 많이 생산됐다.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어록이 "영미~", "가가가~~~", "더더더!"가 아니었나 싶다.

'가가가'는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을 탈 때 MBC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만들어 낸 말이다. 해설위원 강광배 씨는 윤성빈 선수를 스카웃해서 키운 감독 출신으로 이번 해설을 맡으면서 유명세를 탔다.

선수들이 잘하면 중계방송 아나운서나 해설자들도 흥이 나서 신

조어를 만들어 내게 된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해설자도 있다. 스켈레톤에서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설날 아침에 획득한 금메달은 우리의 명절을 더욱 기쁘게 했다. 그래서 '가가가'는 더욱 유명해졌다.

'더더더'라는 말은 컬링에서 나왔다. 별명이 '컬링아재'로 통하는 KBS의 이재호 해설위원이 구수한 입담과 함께 만들어 낸 말이다. 선수가 숨을 죽이며 살포시 스톤을 밀어 보낼 때 빗자루로 얼음을 문지르는 선수들을 보며 나온 말이다. 스톤이 얼음 위를 돌아가면서 짹거나 힘이 부족해 보일 때는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선수들에게 힘이라도 보태듯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에게는 역사도 짧고 선수층이 얇은데도 의성출신의 선수들의 선전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매 경기마다 "영미~"라고 외친 주장 김은정의 높은 목소리는 중계방

송의 '더더더'와 함께 TV를 시청하는 온 국민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1973년 현역시절 유고 사라예보에서 있었던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떠올랐다. 그 때도 이번 스켈레톤과 컬링처럼 메달 획득에 대한 예상은 없었다. 그런데 우리 여자 탁구팀, 이애리사와 정현숙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 중국과 맞붙게 된 것이다. 결승전까지 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말이다. 회사에서는 부랴부랴 현장에서 탁구 중계방송을 하라는 지시를 내려 보냈다.

당시에는 MBC와 경향신문이 같은 회사였고, 현장에는(지금도 고인이 된) 경향신문 이방원 기자가 유일하게 풀러(pooler)로 취재를 갔었다. 급한 대로 이방원 기자에게 중계방송을 준비하도록 했다. 다행히 체신청의 협조를 얻어 선로가 구성됐고 중계방송은 진행됐다.

아침 6시 시보時報가 울리자 시그

널이 나가고 현장으로 마이크를 넘겼다. 아나운서도 아닌 신문기자라서 좀 걱정은 했으나 이방원 기자는 첫 멘트를 근사하게 넣었다. "고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우리나라와 중국의 여자 결승전 실황을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가 시작되자 그가 한 말은 "쳤습니다." "아이고", "성공". 이 세 단어뿐이었다.

상대편에서 넘어 온 공이나 서브를 넣을 때는 '쳤습니다'고, '아이고'는 한 점을 잃었을 때였다. 그 반대는 '성공했습니다.' 오로지 세 마디의 말만으로 3시간 가까이 중계방송을 했는데 청취율은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영미~"와 "가가가", "더더더" 등이 유행어가 됐듯이 45년 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때도 이방원기자의 중계 멘트인 "쳤습니다." "아이고" "성공입니다"도 꽤 오랫동안 유행했었다.

경·조사

■ 구순 ■

이수홍(고문)03/13 한석호(관리)04/23

■ 팔순 ■

김재식(업무)04/08 김조곤(편제)04/08 유수열(편제)04/10
최남석(보도)04/13 구종회(편제)04/15 김희을(기술)04/23
김흥배(편제)05/15 김기준(관리)05/20 정치조(편제)05/30

■ 고희 ■

천영숙(편제)04/01 정계춘(편제)04/04 박광석(업무)04/10
안재기(보도)04/10 윤재희(관리)04/15 안종순(ANN)04/20
신명수(기술)04/26

■ 회갑 ■

박경희(편제)04/29 방기천(기술)05/16

■ 결혼 ■

정철영(보도)장남02/24 류원종(관리)장남03/04 권혁화(ANN)차녀03/17
박춘수(업무)아들03/24 정홍보(보도)장남04/14

■ 부음 ■

이종화(대구)장모상 01/21 이상열(보도)모친상 02/18
김현국(관리)장인상 03/08

회원 / 회비관리

■ 연회비 ■

1월 : 권윤성('17~'18) 권태규('18) 김광안('18) 김상호('18) 김세일('17~'18) 김윤근('18) 김은혜('16) 김재식('15~'16) 김종복('18, 80세 납부 끝)
김종세('18) 남기두('18) 문성수('18) 박기윤('18) 박미숙('14~'15)
박종진('19) 백재인('16) 서정호('18) 손도정('18) 송인의('17~'18)
신명현('18) 심준보('18~'19) 염영수('18) 이대교('18) 이명수('18)
이범수('17) 이상원('18) 이연경('18) 이영일('17) 이영호('18)
인우삼('19, 80세 납부 끝) 장기재('18) 장명호('21~'22) 전용수('18~'19)
전형찬('18) 정대용('17) 정동영('18, 80세 납부 끝) 정봉일('18)
정진도('18) 진경현('17) 최근식('14~'15)

2월: 강복주('18) 강철호('18) 고춘호('17~'18) 김영균('18) 김정명('18)
김정수('17~'18, 80세 납부 끝) 김종국('18~'19) 김주영('15) 김휴선('18)
김흥배('17) 노성식('18) 맹석기('18~'19, 80세 납부 끝) 박종완('17~'18)
박춘수('10~'14) 서상웅('18) 양남중('18) 양홍열('18) 엄기원('18)
연규철('18) 오학식('16) 이기선('18) 이동섭('18, 80세 납부 끝)
이방근('19~'20) 이상림('18) 이상수('17) 이영복('11~'17) 이영일('18)
이종화('18) 임봉주('19~'20, 80세 납부 끝) 장석호('17)
정상화('18, 80세 납부 끝) 정연호('18) 정영수('18) 정영웅('18)
조무영('18) 차기동('18, 80세 납부 끝) 차명륜('18) 최영달('12~'15)
최영복('16) 최홍림('18) 표찬일('18) 홍신숙('18) 홍이표('18) 황진욱('18)

3월: 강현식('18) 김양배('18~'20) 김재현('18~'20, 80세 납부 끝) 신해명('18) 윤현곤('18~'19)

번호 / 주소 변경

임원: 정재순 010-5191-1664
특별: 권해옥 동작구 사당로 9가길 82
편제: 이영일 010-5699-3876
보도: 박우정 동작구 보라매로 5길 43
오남열 010-7584-0740
최근식 010-3070-1958 양천구 가로공원로 66길 19-3
박선영 서초구 방배로 14
기술: 김경로 구로구 신도림로 78
김학정 양천구 목동서로 100
업무: 고춘호 서초구 서운로 104
원정만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3
황귀철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156번길 42-1
관리: 김영원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장로 20
이종철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140
최대홍 양천구 목동동로 12길 60
대구: 이복자 대구 달서구 장기로 16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영복(보도)

1월 1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1969년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문화부장, 해설위원 등을 지냈다. 1983년 퇴직 후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처장, 한국방송개발원 개발 본부장과 이사를 역임했다.

힘을 밖으로 뻗어보자



이 종 민(관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잘 끝났다. 방송. 신문들은 하나 같이 성공적이라 평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허나 ‘성공’이란

평가는 뒤마무리까지 다 보고 나서 했으면 싶다.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은 자랑스럽고 좋았다. 시설은 완벽했고, 개막식은 밝았고, 경기는 멋졌고, 폐막식은 감동을 남겼다. 무엇보다 대한민국(7위)이 이웃 나라 중국(16위)과 일본(11위)을 따돌렸으니 어찌 자랑스럽지 않겠는가. 세계 92개국 2,925명이 참가한 경기에서 우리 민족의 저력

을 멋지게 발휘해줘서 참으로 고마웠다. 하계올림픽(1988), 월드컵(2002), 동계올림픽(2018)을 개최한 ‘대~한민국’ 대단하다.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는 그의 시 ‘동방의 등불’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예견했었다.

일찌기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될지니

학교 다닐 때 우리 민족의 특성은 ‘은근과 끈기’라 배웠다. ‘은근’은 우리의 ‘미’요 ‘끈기’는 우리의 ‘힘’이라 했다. 두뇌가 좋은 것도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

다. 우리나라 금속 활자가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발명시기가 2세기나 앞섰고 첨성대, 측우기, 한글 창제 등 자랑거리가 수도룩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관전하면서 이제는 우물 안에서 아옹다옹만 하지 말고 밖으로 뛰어나가 세계로 힘을 뻗어 봤으면 하고 염원했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려면 해외로 눈을 돌리고 힘을 뻗는 수밖에 없다. 부산 해운대에서 날씨가 좋으면 일본 대마도가 육안으로 보인다. 대마도를 우리 것으로 했어야 했다. 고구려 때 만주 벌판 일부도 우리 땅이었었다.

지금도 뭔가를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 해외에 산재해 있는 200여

대사관에서 할 일은 그 나라의 좋은 정책을 우리나라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 일은 방송, 신문기자 출신들 그리고 해외주재 기업인들이 적격이다. 그런 일 잘도 해 낼 것이다.

이사 다니며 많은 책들을 버렸는데 버리지 않은 책 하나가 있다.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의 자서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다. 지구의 넓이는 약 514,457,600제곱킬로미터. 그 위에서 우리들은 꿈지락거리며 살고 있다. ‘단결과 투쟁’은 ‘일’이 아니다. 도전(Challenge)이 ‘일’이다.

젊은이들이여! 넓은 세계로 훨훨 날아라, 날아 보라!

회/원/동/정



김상균(보도)

2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현재 공적인 방문진 이사에 임명됐다. 임기는 전임자 잔여 임기인

2018년 8월 12일까지다. 김 신임 이사는 보도국 정치부장파원과 워싱턴특파원, 보도국장, 마산MBC 사장, 광주MBC 사장 등을 역임했다.



손목현(기술)

조선미디어 그룹의 TV조선 기술총괄로 근무하고 있다. 1981년 MBC 기술직으로 입사 후 제작

기술국장, MBC C&I 이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일산 스튜디오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한 바 있다.



선동규(보도)

2월 21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궐이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2018년 9월 14일

까지다. 선 신임 이사는 1984년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러시아특파원, 2010년 전주MBC 사장, 2012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승수(편제)

독일어 연극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극단 '프라이에 뷔네'의 창단 50주년 기념 공연 및 행사 준

비위원장을 맡았다. 이 극단이 초연한 독일연극들을 옴니버스로 제작한 이번 공연은 9월 15일(토) 남산 독일문화원에서 하며 세미나도 같이 한다.



이상로(보도)

지난 1월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0년 1월까지

다. 1981년 보도국 카메라기자로 입사 후 '카메라출동' 등을 제작했고 파리와 특파원을 역임했다. 현재 전북 전주기전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승열(보도)

2월 5일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 국제방송)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1년 까지 3년이다.

1982년 보도국 기자로 입사 후 '하이트 진로' 부사장과 불교방송 경영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양운수(기술)

5년간의 우송대학교 방송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생활을 마치고, 2018년 3월부터는 성남 테크노과

학교등학교(구 성남 방송고교)의 영상제작과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1987년 기술직으로 입사해 기술연구소, MBC미디어텍 등에서 근무했다.



박수부(업무)

2월 26일부터 3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일본 국제로타리 2750 지구대회에 서울

국제로타리 3650 지구 차기 총재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 대회에는 한국, 일본, 대만, 괌 등에서 총 2,300여명이 참석해 유대를 강화했다



강복주(대전)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회원은 4월 18일~24일까지 인사동 인사아트 프라

자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성균관 유림서예대전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한국서가협회 학술분과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3.1절에 만난 독도〉 이승문(편제)

동/호/회/소/식



청죽회

시설관리부문 퇴직사우 모임인 청죽회(회장 정광조)는 2월 1일 종로2가 종로삼계탕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26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청죽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을 했으며,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그러나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방안이 나오지 않아 추후 회장단 중심으로 1박2일 정도의 국내여행을 포함한 재논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초록회

MBC 여자 아나운서 출신 모임인 초록회(회장 임국희) 회원 10명은 3월 6일 저녁 여의도 '열빈'에서 열린 한국 아나운서 클럽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감사보고와 지난 해 경과보고에 이어 현역 아나운서들로부터 올림픽 중계 뒷얘기를 듣고, 회비 활성화를 논의하는 등 회원 상호간의 친목의 시간도 가졌다. 정흥숙 회원은 시 낭송을 해 좌중의 큰 박수를 받았다.



문광회

광고인들의 모임인 문광회(회장 황귀철)는 3월 8일 을지로 4가에 있는 '임실 한우촌'에서 17명의 회원이 참석해 3월 정례회의를 갖고 신임 회장에 황귀철 회원을, 신임 총무에 고준호 회원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체 카톡방을 개설하기로 의결했고, 년중 주요 행사로 지방 문화유적 탐방과 해외 명승지 견학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더욱 다채롭고 의미있는 모임을 가꾸어 가기로 뜻을 모았다.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

사진 속에 역사와 애깃거리가 담겨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 코너입니다.

여기 소개하는 사진들을 보시고 덮어뒀던 옛 앨범을 한번 뒤적여 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 찾아낸 귀한 사진들의 이야기를 공유하시면 어떨까요. 사우회원님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내가 쓴 최초의 ENG카메라



이 영 삼(편제)

1969년 정동에서 TV 방송을 시작했을 때, 스튜디오 촬영을 빼고 뉴스, 드라마 등 모든 야외 촬영은 필름으로 제작하고 더빙을 통해서 방송을 했다. 사진에서 내가 들고 있는 이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가 아닌 ENG 카메라로 외장 VTR기기가 따로 있어서 동시 녹음이 가능한 첫 번째 카메라였다. 1977년 당시 겨우 1대만 구입하여 필름 촬영과 ENG 촬영을 병행하면서 제작했지만, 컬러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아주 유용하게 야외 촬영에서 사용되곤 했다. GS라는 표시와 Victor라는 브랜드만 생각날 뿐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아 좀 안타깝다. 이 카메라로 찍은 첫 번째 작품은 ‘수사반장’, ‘전원일기’ 등이다. 이 카메라에 힘입어 드라마 야외 촬영을 동시 녹음으로 할 수 있었고 이후 ENG 촬영 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주부들을 엄청 들썩거리게 했던 프로그램



김 영 철(편제)

1988년 5월에 첫 전파를 탄 ‘주부가요열창’. 기획 단계에서 ‘그거 되겠어?’라고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무색하게 반응이 뜨거웠다. 한 달 만에 시청률 50%를 상회하더니 3년 내내 70%의 시청률을 유지했다.

일본 NHK, 독일 ZDF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CNN에서는 10분 동안 뉴스로 보도했다. 전국에 있는 주부들의 마음을 들썩거리게 했고, 수많은 노래교실을 생산해 냈고, 새로운 스타를 탄생시켰다.

‘주부노래자랑’같은 허접한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기려 한다고 투덜거리던 사회자 이상벽을 일약 ‘스타MC’로 만들었고, ‘가짜 김영철PD’가 나타나 사기를 치다가 잡히는 일도 있었다. 지금에서야 얘기지만, 당시 우승자

가 된 어떤 주부는 졸지에 유명인이 된 덕분에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노래를 하는 바람에 결국 가정파탄이 났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

특집으로 만든 ‘남편가요열창’, ‘부부가요열창’도 쏠쏠하게 인기를 누렸다. LA, 뉴욕특집을 통해 해외에 사는 주부들의 노래 갈증도 풀어줬다. 만 3년이 되던 1991년 5월, 나로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해 후배에게 프로그램을 넘겼다. 이후 형식과 내용을 좀 바꾸고 MC도 변웅전 ANN로 교체해서 몇 년 더 방송된 걸로 안다.

수상자들의 모임도 ‘주부가요동우회’, ‘소리사랑’ 등 두 개나 결성됐었다. 나중에 KBS와 몇 군데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름 재미를 봤다고 들었다. 한 회 한 회 숨가쁘게 제작했던 젊은 날의 내 모습이 오롯이 담겨있다.



음악이 있어 노년^{老年}이 즐겁다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의 개,폐회식 연출,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쇼2000」 「대학가요제」 등 굵직한 음악프로그램들을 제작했으며, 지금도 음악 속에서 노년을 즐기고 있는 ‘뽀뽀뽀의 아버지’ 이재휘(편제)회원을 악단 연습장과 공연장에서 만났다.



어떤 성격의 악단입니까?

서울송문고등학교 밴드부 출신들이 1960년도에 만든 ‘송음화’라는 동우회가 있는데, 전체 인원은 7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단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이 악단입니다. 모두 동문 선,후배들이죠.

악단 이름이 “더 행복오케스트라”네요?

네. 음악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엔돌핀을 만들어 준다고 하죠? 우리 주변 어디에나 음악은 있지만,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생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거나 음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연주를 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드리고자 악단 명칭을 “더 행복오케스트라”라고 지었습니다. 우리의 슬로건은 “음악재능 기부. 단, 더 행복한 세상의 길을 만듭니다.”입니다

연주자들의 나이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80대가 3명, 70대가 8명, 60대가 12명, 50대가 2명, 총 25명입니다. 원래 남자들만 시작했는데 하다보니 단원의 가족(부인, 여동생, 딸)도 참여하게 돼서 여성 3명이 포함됐죠. 노인들이지만 고등학교 밴드부를 지도한다든지, 개인레슨을 한다든지, 하여튼 모두들 건강하고 열정적인 현역 음악인들입니다.

회원님은 악단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나요?

피아니스트 연주자 겸 공연 기획 연출과 홍보를 담당하고, 직함은 고문입니다. 27년간의 쇼PD 경험과

타고 난 재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주하다 보면 나이도 잊고 하루하루 생활이 너무 즐겁습니다

연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주 일요일에 정기 연습을 하고, 공연이 있을 땐 주중에도 모여요.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다 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출석률도 아주 좋습니다. 연습실은 행신 전철역 앞에 있는데 방음장치가 잘 돼 있고 음향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곡들을 연주합니까?

민요, 가요, Pop, jazz, 동요 등 총 80여곡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의 성격에 따라 선곡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또 필요한 곡은 즉시 편곡해서 연주합니다.

지난번 성수아트홀에서 연주한 곡은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제1번, Hand in hand, Grandfather's clock, The way we were, White X-mas, Christmas carol medley” 등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공연들을 하셨나요?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단골로 참여했구요, 그 밖에 기업 창립행사, 단체 송년,신년행사, 모교 동문회 가요열창대회, 초등학교 동요제, 전철역 로비음악회, 또 시골 마을 명석음악회, 교회음악회, 사찰 음악회 등등 셀 수없이 많은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해주면 사례를 어느 정도나 받으시나요?

사례금은 전혀 없어요. 다만, 악기 운반비와 식사 정도? 철저하게 봉사의 목적으로 만든 악단이니깐요.



특히 기억에 남는 연주회가 있으신가요?

재작년에 어느 교회에서 연주를 하게 됐는데, 연주회 중간 쯤 천사같이 차려 입은 6살 어린이가 한 손에 작은 탬버린을 들고 손을 흔들며 관중석에서 나와요. 지휘자가 어린이를 안아서 그랜드피아노 뚜껑 위에 걸쳐 앉혔죠. 피아노에 맞춰 어린이가 ‘뽀뽀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1절이 끝나자 리듬이 “재즈 뽀뽀뽀”로 바뀌고, 리듬이 점점 강해지면서 saxophone, trombone, trumpet, drum, guitar 애드리브 솔로가 연주되고 모든 단원들이 일어나 미리 설치한 난타

북을 치고, 어린이는 피아노 위에 일어서서 탬버린 춤을 신나게 춰요. 그러다가 연주 클라이맥스에서 스톱!하고는 어린이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뽀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나 몰래 엄마 아빠

뽀뽀 많이 많이 하세요”라고 외칩니다. 큰 박수 속에 팡파레가 울리고 끝! ‘뽀뽀뽀’를 만든 사람으로서 생각만으로도 흐뭇한 추억이 아닐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떤 연주회를 하고 싶으신가요?

나라마다 고유의 민속 음악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토속음악. 스위스의 요들송. 프랑스의 샹송. 하와이안 송 등등. 먼저 한국 민요로 출발해서 여행 형식으로 각국의 고유음악을 ‘더 행복오케스트라’ 스타일로 재편곡해서 연주하는, 뭐랄까 ‘세계의 음악여행’을 약 7회 정도로 엮어 공연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장기간 열리는 국제 관광행사에 딱 맞는 프로그램이 아닐까요?

하다보면 보람도 있겠지만 어려움도 많으시죠?

문제라면...단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점이 켈 안타깝죠. 운영비라는 게 연습실



임대료. 소모품 구입비. 악기 장비 보수관리비. 공연당일 악기운반비, 단체 식사비 등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모든 경비를 단원들 스스로 부담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예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더 행복오케스트라”는 순수한 음악 재능기부단체입니다. 이용자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으면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해야 하겠구요. 그러려면 꾸준한 연습으로 실력향상을 위한 노력도 더 열심히 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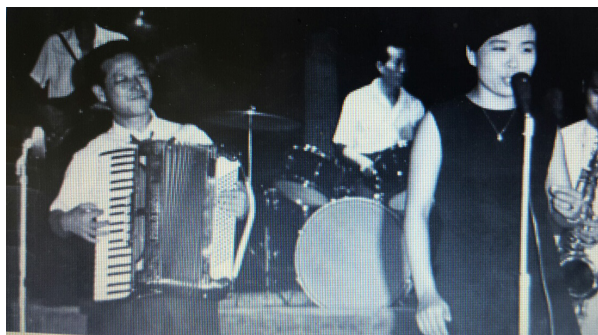
대담: 이기호(편제, 편집위원)

내 품안의 오케스트라



이 현 우(ANN)

어린 시절, 길을 가다 어느 집에서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리면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소리는 쪽을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다. 성인이 되어서는, 막연하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고, 피아노 대신 기타를 잠시 만져보는 정도로, 사실상 악기와는 거의 담을 쌓고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흑백TV에서 가수 이미자 씨가 '섬마을 선생님'을 노래하는데 아코디언으로 반주하는 JP를 봤다.(사진) 참으로 멋져 보였고 '나도 저 악기를 꼭 배워야

겠다'고 마음에 간직했다. 그러나 회사에 다니는 동안 그 생각은 잠시 잊어버렸고, 당시 유행하던 골프에 푹 빠져 국내외 골프장을 무려 30년 가까이 쏘다녔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취미활동으로 뭘 할까' 생각하던 중 다시 아코디언이 떠올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된지 어언 5년이 넘어가고 있다. 아코디언을 배우는 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골프를 하지 않게 된 걸로 봐서는 아코디언이라는 악기의 매력이 대단한 것 같다.

아코디언은 서구 유럽, 러시아 그리고 북한 등에서 많이 인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클래식 보다는 대중가요 반주에 자주 등장해 온 했다. 아코디언은 특히 음색이 단조(短調 minor) 풍이라 한국인 정서에 맞는 구슬픈 노래 반주로는 딱!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규 음악대학 커리큘럼에 아코디언을 전공으로 하는 학과는 없고, 실용음악 범주에 드

는 정도다 보니 전문적인 교육기관도 없고, 연주를 위한 실기 지도자도 부족한 실정이다. 학원 등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선생도 피아노 전공자거나 악단 등에서 연주자로 활동하던 분들이 대부분이다.

알고 보면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는 참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휴대가 가능하기에 악기 운반도 쉽고, 무엇보다 리듬과 멜로디를 동시에 연주할 수 있는 악기다. 가장 큰 매력은, 한 가지 악기에서 바이올린, 클라리넷, 반도네온, 피콜로, 오보에, 바순, 하모니카, 오르간, 아코디언 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듯이 여러 악기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이른바 '품안의 교향악'인 것이다.

또 아코디언은 손으로 바람통(벨로우즈)을 움직여 소리를 내기 때문에 '손풍금'이라고도 하는데, 왼



손가락은 코드를 잡고 오른손가락은 건반을 치게 된다. 이렇게 동시에 양 쪽 손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이기 때문에 치매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사람의 마음의 공간을 채워주는 것이 '음악'이라고 할진대, 아코디언이야말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생활 속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아닐까 감히 생각해본다.

인생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취미로 악기 하나쯤 배워 서로 친목도 돈독히 하고, 기회가 되면 봉사도 할 겸 가칭 'MBC 사우회 아코디언 연주단'도 구성해 즐거운 나날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이 글에 실어 봅니다.

집 중



김 승 월(편제)

“저는 물병을 들고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깃발을 들면 여러분이 중국 관광객처럼 보일까 봐서요.” 캐나다 단체 관광객 따라갔다가 들은 가이드의 말이다. TV드라마 <도깨비> 무대였던 올드 퀘백의 '샤또 프롱트낙호텔' 앞 광장에 사람이 많으니 가이드를 잘 보고 따라오라는 얘기가.

요즘 중국 단체관광객들은 예전 일본 단체 관광객들처럼 '깃발 든 가이드'를 따라 다닌다. 우리도 한 때는 '깃발 든 가이드'를 따라 다녔지만 지금은 '깃발 든 가이드'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눈에 띄는 뭔가로 안내해야 할 상황이니 깃발대신 물병을 들겠다고 한 것이다. 모두 '와'하며 재미있어 했다.

도깨비 호텔 앞 광장에는 한국인, 중국인, 서양인 관광객들로 붐볐다. 가이드는 물병을 높이 치켜 들고 앞장섰다. '깃발 든 가이드'만큼 분명하게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이드가 자랑스러웠다.

“한국 사람은 뭔가 달라” 혼잣말하며 으쓱했다. 그때. 맞은편에서 한 무리의 관광객을 이끌고 오는 가이드의 손끝에 눈길이 멎었다. 중남미 사람으로 보이는 여성 가이드. 거무스름한 피부에 작고 가냘픈 몸매의 그녀는 꽃 한 송이를 치켜들고 앞장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만한 해바라기 꽃을! 순간 물병 든 우리 가이드의 모습을 가려주고 싶었다.

DJ 이종환이 집중시키는 방법은 남달랐다. 30여 년 전, 눈 오는 어느 날,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오프닝이다. “지금 눈이 내리네요. 갑자기 눈이 내려서 저는 술 먹다 말고 스튜디오로 달려와 녹음한 걸 지우고 생방송 합니다. 눈 오는 날

에 이 노래를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합니다.” 당시 방송을 들었던 신권철PD의 기억이다. DJ는 청취자의 귀를 쫓긋 세우게 한 뒤 노래를 소개했다. “이 노래 음반은 MBC 레코드실에 딱 한 장뿐입니다. 이미자의 노래 ‘첫눈 내리는 거리’ 들려드립니다.” 신권철PD는 궁금해서 MBC 레코드실을 샅샅이 뒤졌다. 짐작대로였다.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의 음반이 나왔다.

집중은 이야기를 이어가는데도 절대 필요하다. 손석희 아나운서가 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 <시선집중>을 진행할 때다. “어떻게 해야 인터뷰를 잘할 수 있냐고 물었다.

“좋은 질문 던지는 것 못지않게 열심히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질문도 나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는 사회자의 기본 능력의 하나로 집중력을 꼽았다. 그 자신도 인터뷰를 마치고 나면 피곤해서 다른 일을 하기 싫을

정도로 집중한다고 했다.

별밤지기 이문세 또한 누가 출연해도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갔다. ‘어떻게 이야기를 그리 재미있게 끌고 가냐고 물었다. “대화에 집중해요, 집중하다보면 상대방에서 허점이 나오고 허점이 나오면 허점을 이용해서 웃기는 거죠, 유머러스하면 유머러스한 대로 받아서 재미있게 하는 거고.” 미리 준비한 질문지 순서대로 묻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집중해서 듣고 질문을 찾아 보면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끌 방법이 나온다는 말이다.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는다. 이왕 나누는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상대방 말에 집중해 주고, 상대방을 나에게 집중시켜야 하지 않을까. 해바라기 꽃을 든 가이드처럼, 방송의 고수들처럼, 대화도 정성을 들여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사랑이니가.

늦깎이 합창단원의 고백



최 동 윤(관리)

국내 교회 중 하나인 '대한성공회'를 아시는 분들이 주변에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본당 위치가 덕수궁 옆이라면 혹시 아실런지...

나는 햇수로 20년 정도 대한성공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2016년 7월 어느 날 한 교인으로 부터 남성합창단 가입을 권유받았다.

취미 삼아 오랫동안 클래식 음악과 교회음악을 접해오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감상 수준이었기 때문에 경험도 자신도 없어서 한참 망서린 끝에 “해보다가 안되면 그만 두지 뭐” 하는 마음으로 가입했다.

단원은 모두 30명이고 연습은 매주 1회 두 시간인데, 악보를 보면서 발성하는 기본적 훈련이 안된 내게는 연습자체도 무척 버거웠다. 부족한 가창능력은 어쩔 수 없고 그저 충실히 연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어찌됐든 그로부터 15개월이 지난 2017년 11월 정기발표회를 갖게 되었는데 겨우 1년여의 훈련만 거친 내게는 매우 긴장되는 일이었다. 성악전공자 위주로 구성된 전문합창단에 비해 동호인 위주로 구성된 합창단은 성가대 활동이나 교직 등을 통해 소양을 갖춘 분도 있으나, 악보읽기와 성악적 기량이

부족한 단원도 일부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라서 상당한 연습량에도 불구하고 발표회 막바지 때까지도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해 지휘자와 모든 단원들이 노심초사했다.



그러나 일단 무대에 서니 단원들은 열성적으로 노래를 불렀고, 관중들의 합찬 박수 속에 성가위주의 12곡을 마치고 나서는, 일부 곡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도, 생각보다 잘한 편이라는 생각으로 무대에서 내려왔다.

이번 발표회를 나름대로 정리해보니, 합창이라는 장르가 '정확성, 균형감, 자신감, 신선함, 온화함, 열의'라는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볼 때 수준급 합창단에 비해 지나친 긴장에 따른 다소 불안한 부분도 있었으나, 합창에 대한 열의와 신선함 같은 점에서는 높은 평가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수가 성악 전공자가 아니어서 현재의 기량이 전문음악인 수준에 미칠 수는 없겠지만, 이번 발표회를 통해서 발전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고 관객들에게 합창을 통한 찬양의 감동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종교음악 특히 합창은 성악의 기량 뿐 아니라 단원 개개인의 혼을 담아 일치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이 전문 음악인들에게는 하찮은 내용으로 보이겠지만, 첫 무대 경험기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매번 연습시간이 즐거움으로 가득한 것도 좋고, 오랫동안 즐겨온 기독교 음악을 감상 수준에서 미숙하나마 연주 수준에 까지 인도해주고 지도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더불어 바쁜 직장생활 가운데 짬을 내주시거나, 원거리에서 찾아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장기간 지침없이 찬양과 연습에 매진하는 우리 단원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보내고 싶다.



더케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한

The-K 예다함상조

대쪽보다 올곧은 정직의 예



예다함

예다함은 한국교직원공제가 100% 출자한 상호회사입니다.
믿음과 정직이 먼저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
상조회사의 본보기가 될 1등의 예를 만들고 있습니다.

※ MBC 사우회와 2017년 8월 16일 업무협약 체결!
(사우회원과 가족에게 최고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국내 최대, 자본금 500억원
- 공정위 '2016년 상호업 주요정보 공개' 보도자료 기준
· 국내 유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연대 지급보증

· 국내 최대, 3개 은행사 지급보증
-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 국내 최고 수준, 지급여력비율 114%

· 3개년 연속 흑자 시현(총 79억)
· 자산증가율 28%
- 총 자산순위 상위 4개 업체 중 1위 (2016년 기준)

가입문의 1566-6644
www.yedaham.co.kr

